

蒙古壓制下的

高麗史學的動向

金 哲 堉

I

高麗가 蒙古에 服屬하고 난 뒤 元宗·忠烈·忠宣 三代에 걸쳐서의 政治的·社會的 陣痛은 그 전 時代와는 다른 歷史意識의 成立을 強要하고 있었다. 이 時期에 成立하는 歷史意識이 바른 軌道에서 發展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植民地史學的 性格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史學的 영향이 뒤에까지 크게 作用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時期의 高麗史學은 恭愍王 때 李齊賢에 의하여 事大를 合理化하는 儒敎史觀으로 整理되어 朝鮮時代史學的 性格을 決定하는 一基盤이 되었던 것이므로 한번은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前提的인 研究 없이 數年前에 益齋 李齊賢의 史學에 대해서 管見을 發表한 바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武臣政權이 崩壞되고 蒙古에 服屬한 初期에 일어났던 史學的 傾向을 李承休의 帝王韻記를 中心으로 하여 檢討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II

武臣亂以來 오랫동안 抑壓되어 왔던 文臣들이 崔氏武臣政權 打倒에 參與하여 成功하였으나 새로운 活動을 시작하는 꿈도 가져 보지 못한 채 다시 蒙古의 壓力에 의한, 強要된 對應關係에 들어가면서 威嚇·恐喝과 擄取를 甘受할 수 밖에 없는, 보다 悲慘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外壓으로 말미암아 그 전 시기부터의 社會矛盾을 解決할 能力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自身들이 激化一路에 있는 社會波動에 漂流하는 身勢가 된 것이다. 이러한 激甚한 陣痛期에 나타난 두 가지 形

態의 歷史意識은 高麗社會가 當面한 課題들을 解決할 能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르게 意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번은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僧侶層 社會에서 傳統文化的 意識을 強하게 主張하고 있으나 寺院 自體가 高利貸業者이고 大土地所有主인 까닭으로 高麗社會 矛盾을 解決하면서 文化的 傳統을 보다 擴大된 社會基盤에서 發展시킬 수 있는 方向을 提示하지 못하고 만 것이 一然의 三國遺事에 나타난 意識傾向이다. 다른 하나는 文臣層 社會에서 儒敎史觀을 내세워 政治와 社會의 安定을 標榜하는 것이었으나 李承休의 帝王韻記에서와 같이 事大的·非自主的 性格을 合理化하는데 汲汲하는데 끝이고 말았다.

이 時期에 文臣層에서는 鄭可臣의 千秋金鏡錄, 許珙의 古今錄, 李承休의 帝王韻記, 閔漬의 本國編年綱目·閔漬와 權溥의 世代編年節要 등 比較的 많은 史書가 나온 편이다. 많은 史書가 나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文臣들의 새로운 活動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먼저 이 時期의 文臣들의 活動이 어떤 性格의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當時史學的 動向을 理解하는 捷徑이 될 것이다.

崔氏武臣政權 打倒에 있어서 文臣側의 主役이었던 柳墩과 蒙古의 壓力과 妥協하는데 나섰던 李藏用과 崔氏武臣政權時期부터 文名을 날렸고 蒙古服屬 뒤에 外交文書 製作에 活動이 컸던 金坵 등을 中心으로 한 다 음表에 나온 文臣들의 動向을 살펴 보기로 한다.

蒙古에 服屬한 元宗年間에 있어서 어느 정도 政治勢力을 가졌던 이가 柳墩·李藏用으로서 이들이 文臣들의 中心이 되었던 것이니 柳墩의 門生에는 安珣·安戩·李尊庇·李混이 있었고 金坵와 더불어 高宗實錄을 撰하였던 元傳나 古今錄의 撰者인 許珙도 그의 薦을 입어 官界에 進出하였던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元和 妥協하면서 元宗朝부터 相當한 勢力을 갖게 된 李藏用(李子淵)의 六世孫은 官이 門下侍中에까지 이르렀으나 一般文臣과는 달리 佛敎學의 造詣가 깊었던 것 같고 그러한 까닭에 禪家宗派圖·潤色華嚴錫洞記 같은 著書를 남긴 것 같다. 또 그러한 까닭에 篤實한 佛敎信者이며 內典錄의 著者인 李承休를 薦하게 된 것

人名	生存年代	著作活動	人的事項 其他
李藏用	二〇一~二七二	監修國史。禪家宗派圖、潤色華嚴維洞記	元翰林學士王鶚과 交遊
金 坵	二二一~二七八	撰神熙康三朝實錄	王鶚이 金坵所製表 詞에 感嘆·李藏用 柳敬의 薦
柳 敬	二二二~二八九	監修國史、撰神熙康 高宗朝實錄	
許 珙	二二三~二八一	修圖史、古今錄	柳敬의 薦
鄭 可 信	? ~二九八	千秋金鏡錄	元의 文臣과 高麗史 를 論한 飲藥死
李 承 休	二三四~三〇〇	史館修撰官·帝王韻 記、內典錄	李藏用。柳敬의 薦 元의 學士侯友賢李 承休詩에 嘆服
閔 漬	二四八~一三三六	本國編年綱目 世代編年節要(共著)	元의 文臣과 高麗史 를 論한
權 溥	二二六~一三四六	世代編年節要(共著) 孝行錄	四書集註刊行建議
一 然	二〇六~二八九	三國遺事	

같다. 이밖에 許珙·元傳와 더불어 古今錄을 撰한 韓康은 忠烈王에게 治國의 要論을 알기 위해서 法華經을 읽어야 한다고 勸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恭愍王以後에서와 같이 佛敎와 儒敎의 對立이 아직 激化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佛敎信者 乃至 佛敎學者들이라고 하더라도 一然의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歷史意識은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反對的 立場에 섰던 것은 李承休의 帝王韻記와 三國遺事의 比較에서 알 수 있고 그 理由는 주로 그 文臣이라는, 官吏라는 體質과 立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當時에 있어서의 文臣의 立場은 高麗初葉의 崔承老와는 勿論이고 그 뒤의 崔冲이나 金富軾과도 다른 것이어서 自主性을 잃은 狀態에서 어떤 經綸도 없이 命令대로 움직

이는 官吏로 轉落한 것이었다.

蒙古族의 遊牧國家가 아니라 이미 天下를 支配하게 된 元은 그 世界帝國을 運營함에 必要한 設備을 設定하기 위하여 漢人文臣들을 登用하여 儒敎政治思想을 내세우고 있었다. 元人들이 儒敎思想을 理解하였다기 보다는 蒙古地域보다 文化가 앞선 中國이나 高麗地域을 支配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儒敎政治思想을 利用하지 않을 수 없는 狀態에 있었고 여기에 徹底하게 操縱당하고 利用당한 것이 高麗의 文臣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武臣의 壓迫에서 벗어나 새로운 活動舞臺를 發見하려 하였으나 結果는 보다 惡化된 狀態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文臣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出世하기 위하여서는 李奎報와 같이 새로운 世界를 찾으려고 苦悶하기 보다는 元의 翰林學士들에게 知音이 뛰어나서 敬重함을 받는 다던가 (李藏用) 그 文章의 훌륭함을 認定받는 다던가 (金坵)· 優秀한 詩人으로서 認定되는 것 (李承休) 등이 前提條件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條件이 元의 暴壓을 어느 정도 緩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金坵의 例로서 알 수 있다.

「時上國徵詰 殆無虛歲 坵撰表章 因事措辭 皆中於理 回詔至云 辭語懇實 理當餘允 元翰林學士王鶚 每見表詞 必稱美 恨不得見其面(高麗 史列傳 金坵條)」

그러나 文臣들은 蒙古公主의 橫暴에 시달리고 達魯花赤과 通譯官의 눈치를 살피기에 餘暇가 없었으니 그들의 文章과 儒學은 高麗國家의 自體的 運營을 위한 經綸이 아니라 元의 徵詰이나 緩和하여 結果의 元의 高麗支配를 長期間 繼續시키는 機能을 가진 것으로 되었다. 李藏用이 그러했고 金坵가 그러했다. 千秋金鏡錄의 著者 鄭可信은 그러한 忠誠을 다하다가 마침내는 忠烈王과 世子 父子間의 싸움에 휘말리고 元의 壓力에 끌리어 忠烈王 二十四年 王이 世子(○忠宣王)에게 禪位하는 表를 지어 놓고 그 表의 語句問題로 飲藥自殺까지 하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狀態下에서 編纂되는 史書의 性格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는 대개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史書로서 지금 남은 것은 歷代歌形式의 帝王韻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湮滅되어 그 내용은 알 길이 없다. 許珙의 古今錄이나 千秋金鏡錄은 가까운 것으로는 武臣亂을 일으키게 한 毅宗朝의 政治紊亂이나 武臣執權期의 社會混亂, 보나 溯及해서 後三國時代의 混亂 등 未來를 訓戒할만한 過去의 個別的 事例들을 모은 것이고 一貫된 體系下에서 이루어진 敘述은 아닌 것으로 推測된다. 또 그러한 까닭에 뒤에 閔漬와 權溥가 이를 다시 增補하고 一定한 體系를 賦與한 것이 世代編年節要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III

이제 古今錄과 千秋金鏡錄 뒤에 나온 것인 帝王韻記의 內容을 檢討하고 當時의 史學傾向一般을 推測코자 한다. 帝王韻記 외에는 詩史로 남아 있는 것이 李奎報의 東明王篇뿐이나 그것은 全史를 詠歌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있었던 高得相詩史나 吳世文의 歷代歌는 없어서 比較할만한 것이 없고 詩史아닌 것으로도 남은 것이 없으므로 帝王韻記만을 가지고 臆測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다. 元來 그의 詩는 이름이 있어 그와 同時代인 元의 學士 侯友賢이 心服하였다고 하고(高麗史列傳 李承休傳) 뒤에 와서도 遼·金·元三史編纂의 總裁官이었던 歐陽玄(二七三—三五七)이 아래와 같이 評하고 있다.

「余從其外孫古鼎溫禪師得詩文一秩讀之思致不塵 語意清峻 有漂然世外之趣」(動安居土文集雜著部)

이러한 評으로 그의 詩가 大端히 높은 水準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元의 支配에 허덕이고 있는 文臣들의 體質에서 脫皮하지 못한 까닭으로 그 詩才로 이루어진 帝王韻記에 나타나는 史觀이 貧困한 것은 勿論이요 그 文學性도 李奎報의 比가 되지 못한다.

그는 東國君王開國年代를 노래한 帝王韻記 卷下의 序에서 「謹據國史 旁採各本紀 與夫殊異傳所載 參諸堯舜已來經傳子史 去浮

辭取正理 張其事而詠之 以明興亡年代 凡一千四百六十言」

이라 하여 古朝鮮부터 三國과 渤海·後三國에 이르기까지의 歷史를 七言詩 一千四百六十字로 要約한 것을 밝히고 있으나 帝王韻記 全體에서 받는 印象으로서는 要約이 지나쳐서 一千四百六十字로 준 것이 아니라 歷史와 傳統에 대한 理解幅이 좁아서 貧困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去浮辭 取正理」의 立場이 東明王篇이나 三國遺事와 같이 金富軾의 古代史認識體系에 대하여 正面的으로 批判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金富軾의 三國史記의 認識을 踏襲함이 많은 「謹據國史」의 立場이었던 까닭으로 貧困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한편 帝王韻記는 樹木信仰과 結付된 檀雄大王云々の 檀君神話의 一異型을 記錄하면서 韓國史의 出發點을 檀君에서 부터 잡았고 新羅紀末尾에서 「後唐末帝·淸泰二乙未仲冬朝我陛」我太祖十八年也 自檀君元年戊辰 至此 凡三千二百八十八年이라 하여 古朝鮮이나 三國時代史를 高麗史와 分離하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檀君紀元이라는 基準에서 統合의 理解하려고 하여 斷代史로 滿足한 金富軾의 三國史記보다 一段의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進展이 있어서 恭愍王時의 白文寶가 「吾東方 自檀君 至今已三千六百年 乃周元之會 宜遵堯舜六經七道 不行功利禍福之說 如是則上天純祐 陰陽順時 國祚延長」(高麗史 白文寶傳)이라 하여 儒教化된 檀君紀元論을 提示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한다. 다시 말하면 李承休가 말한 「去浮辭 取正理」는 當時의 愚夫騷婦라도 모두 共感할 수 있는 傳統의 生命力을 去勢하는 儒教的 認識을 取한다는 말이며 이것이 古代文化建設의 主役이었던 佛敎를 버리고 中世政治의 方向을 提示하는 儒敎思想에 立脚할 것 같은 國祚가 延長될 것이라는 白文寶의 理解에 到達하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理解의 進展도 李承休의 歷史認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恭愍王의 反元政策의 標榜이 있어서 비로서 可能하였음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은 李承休의 歷史認識의 立場을 李奎報와 比較하면 極히 對照的인 것을 볼 수 있

다. 李奎報는 東明王篇序에서 孔子가 말하는 「不語怪力亂神」하는 立場에서 서서도 東明神話는 鬼幻한 것이 아니고 神聖한 것이라 主張하고 一然도 이에 본받아 「怪力亂神 在所不語」의 立場에서 서서도 檀君神話의 價値를 認定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一然이 山谷에 숨어서 끈질기게 계속되는 傳統文化의 呼吸 속에서 文臣들의 苦難의 行程을 非主流的・過渡期的인 것으로 보는 恣勢를 가지는 것과 鄭可信이나 李承休 등의 文臣들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元의 走狗의 位置에 轉落한 것과 差異에서 그와 같은 歷史觀의 差異가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帝王韻記에 나타난 李承休의 三國觀이 어떠한가를 살펴 보면 高句麗나 百濟에서는 그 始祖說話만 艶說하고 中間의 歷史變遷過程에는 一言의 言及도 없이 高句麗는 淵蓋蘇文의 姦回, 寶藏王의 失度, 百濟는 義慈王의 失度와 이를 討伐하여 달라는 新羅王의 奏乞로 唐君이 來討하여 망하였다고 하는 것에 그치었다. 또 百濟紀에서는 總一六八字로 百濟全史를 一括하였는데 이것과 非難으로 끝인 甄萱의 後百濟紀의 分量과 같을 수 있다는 점은 妥當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高句麗史의 경우 詠史의 題材가 그 建國神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淵蓋蘇文을 聲討하는 것은 帝王韻記뿐이 아니니 그대로 默過한다고 하더라도 廣開土王의 業績이나 乙支文德의 大勝 같은 가장 適當한 題材에는 一言도 言及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李承休의 態度는 高麗史를 노래한 本朝君王世系年代에서도 마찬가지어서 高麗初 契丹軍을 물리친 徐熙나 姜邯贊의 功勳은 말하지 않고 있다. 中國의 歷史를 노래한 帝王韻記 卷上에 있어서 契丹과 金과의 衝突에는 言及하면서 이와 같이 契丹과 高麗와의 戰爭史實에는 눈을 감고 있다(卷上에서 「其先大史烏古剌山水平州鍾秀氣故應謂我父母鄉結爲兄弟通信使」라 하여 女眞族에 대한 高麗의 特殊關係를 強調하고 있는 것은 高麗歷代의 女眞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李承休의 態度는 究竟 오랫동안 蒙古侵入과 싸워온 高麗가 元이 아닌 中國과의 抗爭을 말하는 것도 元에 대한 敵對行爲로 看做될 危險性이 있는 까닭에 取해진 것이라 보인다. 그리고 그가 佛敎를 좋아하면서도, 또 新羅本紀

에서는 義湘과 元曉에 言及하면서도 高麗時代에 와서 詩題로 適當한 大覺國師의 渡宋史實도 言及함이 없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去浮辭取正理」의 標榜과 些少한 危險性도 避하는 「事大性」이라는 文臣들의 體質이 이 時期의 史觀의 性格을 決定짓는 要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더 言及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要因은 當初의 高麗建國理念까지 變形시키고 있었던다는 점이다. 高句麗後繼精神의 主張이 高麗建國의 主要標榜이었는데 文臣들이 儒敎史觀을 論謂하게 되고 金富軾이 妙淸亂을 討伐한 이후에 는 이것이 漸次 褪色하고 있었으나 蒙古服屬期의 史學은 이 傾向을 더욱 促進시키는 面이 있었던 것 같다.

忠宣王이 李齊賢에게 「我太祖即位之後 金傅未賓 甄萱未虜 而屢行西都 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舊壤 爲吾家青氈 必席卷而有之 豈止操鷄搏鴨而已哉」(高麗史 太祖世家史贊)라 한 것을 보면 王室에서는 高句麗後繼精神의 建國理念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있어서도 高麗의 建國을 高句麗의 傳統과 連結되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同書卷十七 東神祠條에서 「東神聖母之堂」이라 하여 周書 高麗傳에 보이는 高句麗의 國母神信仰이 高麗時代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帝王韻記에서는

「自古受命君 孰不非常類 惟我皇家系 於此尤奇異 唐肅潛龍時 遊賞東山水 禮彼八眞仙 寄宿松山趾」

라 하여 地方豪族이었던 王氏의 家系說話만을 誇張하여 내세워 高句麗傳統과 連結되는 原來의 建國理念과 代置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建國理念의 成立에서 볼 때 三國時代나 統一新羅時代와 高麗時代와의 差異는 三國時代・統一新羅時代는 家系觀念이 곧 建國理念이 되던가 同一視되지만 高麗時代에 와서는 家系觀念과 建國理念과는 分離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高麗太祖가 家誠로서 十訓要를 내리는가하면 따로 國家政治의 基本大綱인 政誠一卷과 誠百寮書八篇을 頒布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史實에 눈을 돌리지 못한 것은 高麗中葉以後 新羅正統思想을 내세우려고 하는 動向과 高麗貴族의 家系重視觀念과 또 이것들과 緊密한 關聯이 있고 그 支柱가 되어 온 儒敎의 保守性과 複合된 認識에서 벗어나지 못함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에 있는 高麗世系에서 閔漬의 編年綱目을 引用하여 王氏家系를 艷說한 것을 보면 閔漬의 編年綱目이나 閔漬와 權溥의 世代編年도 家系觀念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傳統的인 建國理念에 代置시키려는, 本質的으로 帝王韻記와 다름이 없는 性格의 것이라고 推測되는 것이다.

IV

以上에서 蒙古服屬初期에 있어서 文臣들의 史觀이라는 것은 一然의 三國遺事와는 反對的인 立場에서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가지 歷史認識은 서로 새로운 思潮에 대하여 認識을 가지려고 애써 思想的 進展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들이 屬한 社會經濟的 位置가 變動되지 않는 限 그 새로운 思潮가 새로운 文化能力으로 展開되기 어렵다는 條件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각기 가지는 限界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兩者의 思想的 葛藤만 계속되게 마련이었다. 一例를 一然이 理解한 良价의 「洞山五位」가 차지하는 思想的 位置와 機能을 들어서 說明할 수 있지 않음과 같다. 洞山五位라는 것은 佛敎의 立場에서 佛敎의 認識方法과 周易의 易理를 綜合하여 學人들의 功夫의 階次를 밝힌 것이니 뒷날에 와서는 周易의 爻卦까지 利用하게 되고 宋代 周濂溪의 太極圖는 이러한 五位論의 影響을 받아서 成立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것이다 시 佛敎에 影響을 주어 그 五位를 說明하는 五位總圖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閔泳珪敎授의 研究에 依하여(一然의 또 하나의 著述 重編曹洞五位三卷) 高麗 曹溪宗에서는 一然보다 앞서 志謙이 洞山五位顯訣單卷을 다룬 關係文獻으로서 補遺하여 二卷으로 開刊하였으나 慧誥(眞覺國師)이 그 誤謬가 많음을 指摘하여 왔고 이에 影響을 받은 一然이 다시 整理하여 重編曹洞五位三卷을 著述하였음이 밝혀 지었다. 이리하여 高麗의 佛敎

도 中國에서 일어나는 儒佛의 思想的 交涉의 經驗을 뒤늦게나마 經驗하면서 思想的 打開을 企圖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것은 高麗末의 歷史意識의 變遷過程을 理解하는데 極히 重要한 것이다. 그리고 高麗의 佛敎가 마침내는 佛敎의 影響으로 成立된 性理學을 받드린 麗末의 新進知識階級에 依해서 抑壓되고 말았으나 이미 있었던 그와 같은 儒佛思想의 相互交涉關係에 대한 認識은 佛敎를 正面으로 攻擊하지 않은 益齋나 牧隱의 思想傾向을 理解하게 할 뿐더러 朝鮮初의 性理學이나 佛敎의 性格을 理解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여기에 덧붙여 말해 줄 것은 唐末宋初부터 일어난 儒敎復興氣運이 시작하여 朱子學이 成立되기까지의 變遷過程을 高麗社會가 얼마나 理解하고 있었는가가 問題인데 金富軾이 王安石(一〇二一—一八六)의 思想을 理解하고 있었던 것은 三國史記 列傳 淵蓋蘇文條에 있는 그의 史論으로서 알 수 있으며 이 당시 高麗人이 中國에 건너가 直接 王安石에 師事한 記錄이 益齋의 樸翁稗說에 나타나고 있다.

管見神孝寺唐頭正文年八十善說語孟詩書 自言學於儒者 安杜俊 昔一士人入宋 聞荆公(○王安石) 退處金陵 往從之受毛詩七傳 而至杜俊 故詩則專用 王氏義 語孟及書 所說 皆與朱子章句蔡氏(○蔡模) 傳合 當是時二書 未至東方 不知杜俊何從得其義 樸翁稗說 前集(一)

이로서 보면 高麗儒學에 있어서도 白頤正이나 權溥가 性理學 書籍을 流布시키기 以前에 있어서 將次 性理學을 理解할 수 있는 基礎가 만드려져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性理學 以前의 高麗佛敎나 儒敎의 思想的 深度가 問題되기 보다는 高麗社會가 안고 있는 諸矛盾, 權門勢家의 橫暴, 元의 壓力으로 形成된 植民地的 體質 등에 대한 改革問題가 보다 큰 것이어서 時代가 지나감에 따라 一然의 佛敎의 史觀보다 文臣들이 새로운 哲學體系의 完全한 理解없이 現實的 矛盾의 除去만을 내세우는 貧困한 儒敎史觀으로도 得勢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